

중국, 1월 수출입 개선은 기저효과

한화증권, 수출입 증가율은 기저효과 ... 천연고무·플라스틱 수입 증가

중국의 1월 수출입은 지표상 크게 개선됐으나 기저효과에 힘입은 <빛좋은 개살구>라고 2월12일 한화투자증권이 평가했다.

박매화 연구원은 “1월 중국 수출입 증가율이 기대 이상으로 높았지만 조업일수 증가와 2012년 1월 수출입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1월 중국의 수출액은 187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해 2012년 12월 14.1%와 시장 기대치 17.7%를 상회했으며, 수입액은 1582억달러로 28.8% 증가해 2012년 12월 6.0%와 시장 예상치 23.5%를 웃돌았다.

박매화 연구원은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를 감안한다면 2012년 12월 중국의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3.4%, 수입 증가율은 0.3%에 그치고, 오히려 2012년 12월 19.5%, 11.0%에서 큰 폭으로 둔화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1월 무역수지는 2012년 12월 316억달러에서 약 25억달러 축소된 292억달러를 기록했다.

박매화 연구원은 “중국해관총서가 1월부터 위안화 기준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당국은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포석도 깔렸다”며 “1월 무역수지가 감소함에 따라 위안화 절상 압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1월 타이완 52.6%, 아세안(ASEAN) 48.8%, 남아프리카 44.6%로 수출이 평균을 상회한 반면, 프랑스 마이너스 6.4%, 독일 마이너스 0.9%로 감소해 신흥국 수출은 크게 개선하고 선진국 수출은 평균을 밑돌았다.

박매화 연구원은 “천연고무, 원유, 초기 플라스틱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며 “원자재 수입증가는 최근 중국의 경기회복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2/12>